

**전일동향**

전일대비 9.50원 하락한 1,440.3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9.50원 하락한 1,440.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상승한 1,449.90원에 개장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가동 소식에 환율은 1,429.50원까지 레벨을 낮췄다. 다만, 저가 매수세 및 강달러에 환율은 낙폭을 반납하며, 1,440.3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24.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1.88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9.90	1454.30	1429.50	1440.30	1442.30
	엔화	930.48	931.33	914.81	920.27	-
	유로화	1707.14	1713.23	1685.21	1695.77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1	-3.65	-9.88	-19.45
	결제환율(수입)	0.05	-2.75	-8.01	-16.0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개입 경계감 지속에...1,43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60)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40.30) 대비 1.90원 상승한 1,440.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당국 경계감 지속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환율은 고점 대비 40원가량 하락했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재개 영향 등에 환율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한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유입 등에 환율 하락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러화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엔화 약세에 강보합을 보이며 0.09 상승한 98.02를 기록했다. 12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비 2.0% 상승하며 예상치(2.3%)를 하회했다. 이에 따른 BOJ의 추가 금리인상 불확실성에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 금일 환율은 당국의 실개입 경계감 등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율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및 엔화 약세 등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32.67 ~ 1446.0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790.4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90원 ↑
	■ 美 다우지수 : 48710.97, -20.19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3.2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8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